데이터융복합/소비자리서치 전문 연구기관
Consumer Insight
컨슈머인사이트 보도자료
(자동차 리포트 21th-16호)

기 관	컨슈머인사이트	이 메 일	sammy.park@consumerinsight.kr
문 의	박승표 이사	연 락 처	02) 6004-7661
배 포 일	2021년 10월 27일(수) 배포	매 수	자료 총 5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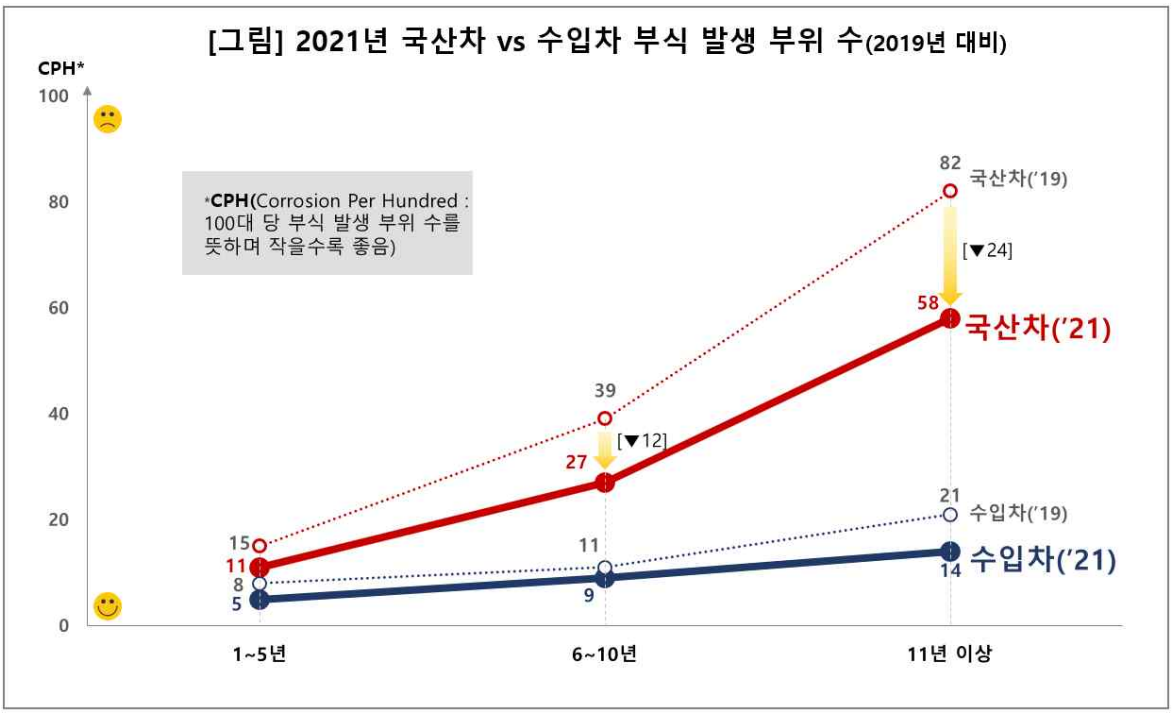
■ 2021년 자동차 기획조사 보도자료 ⑥

국산차 부식 줄었지만 수입차와 격차는 그대로

컨슈머인사이트, 국산 vs 수입차 부식 발생경험 비교

- **국산차 100대당 부식 발생 수 2년새 26~32% 감소**
- **수입차도 18~37% 줄어...국산이 여전히 2~4배 많아**
- **국산차 약점은 내구품질, 그 중에서도 부식이 가장 심각**
- **최다 발생 부위는 머플러...도어·뒷바퀴펜더·하체프레임도 취약**
- **국산 브랜드별로 르노삼성·한국지엠이 현대·기아보다 월등**

[그림] 2021년 국산차 vs 수입차 부식 발생 부위 수(2019년 대비)



국산차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부식 발생 부위 수가 최근 2년 새 30% 감소했음에도 수입차와의 격차는 여전히 2~4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수입차 부식 발생률도 국산 이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산차의 초기품질 만족도가 수입차를 앞지를 정도

로 좋아지고 있음에도 내구품질은 여전히 큰 약점이며 그 중에서도 부식 문제는 가장 심각하다.

자동차 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연례 자동차기획조사'에서 새 차 구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소비자(국산 2만31명, 수입 2914명)의 부식 발생 경험을 부위별로 묻고 '100대 당 부식 발생 수(CPH; Corrosion Per Hundred)'를 산출했다. 보유기간은 ▲1~5년 ▲6~10년 ▲11년 이상으로 나눠 시기별 발생 추이도 비교했다.

■ 국산차 VS 수입차 : 발생비율은 국산이 최대 4배로 여전히 격차 커

2021년 국산차 CPH는 사용기간 별로 ▲1~5년은 11건 ▲6~10년은 27건 ▲11년 이상은 58건이었다. 5년차까지 10대 중 1대꼴로 발생하던 부식 건수가 6~10년차에서는 4대 중 1대, 11년차를 넘으면 2대 중 1대 이상에서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19년에 비해 각각 4건(26%), 12건(32%), 24건(29%) 감소한 수치다**[그림]**.

수입차는 ▲1~5년 5건 ▲6~10년 9건 ▲11년 이상 14건으로 2019년 대비 각각 3건(37%), 2건(18%), 7건(33%) 감소했다. 국산·수입 모두 상당한 수준의 부식 개선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감소 건수는 국산이 훨씬 많았지만 감소폭은 수입차가 6~10년차를 제외하곤 오히려 더 컸다. 국산 이상으로 수입차의 부식 내구성도 향상된 것이다.

사용기간별로 국산이 수입차보다 1~5년에서는 2.2배, 6~10년에서는 3배, 11년 이상에서는 4.1배 많아 2019년(각각 1.9, 3.5, 3.9배)과 엇비슷했다. 전체 평균으로는 2019년 3.8배에서 올해 3.6배로 다소 줄어들었어도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표] 브랜드별 부식 발생 부위 수(2021년) [단위 : CPH*]

브랜드	새 차 구입 후 경과한 햇수		
	1~5년**	6~10년**	11년 이상**
현대	13 (▼4)	33 (▼9)	60 (▼28)
기아	10 (▼7)	28 (▼14)	64 (▼23)
쌍용	12 (▼3)	25 (▼24)	83 (▼8)
한국지엠	7 (▼4)	15 (▼13)	50 (▼42)
르노삼성	8 (▼3)	19 (▼5)	37 (▼9)
수입(평균)	5 (▼3)	9 (▼2)	14 (▼7)

*CPH(Corrosion Per Hundred : 100대 당 부식 발생 부위 수를 뜻하며 작을수록 좋음)
** 값 : 2021년 CPH(2019년 대비 증감)

■ 브랜드 별 비교 : 기아가 현대차보다 더 크게 개선돼

국산차 브랜드별 비교에서도 이전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모든 브랜드, 모든 사용연차에서 부식발생 건수가 감소했으며 브랜드 별 순위 변동도 크지 않았다. 압도적인

판매 점유율을 차지하는 현대차와 기아가 부식 측면에서는 중견3사에 비해 오히려 열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전과 같았다.

현대차와 기아는 2019년 사용기간별 부식 건수가 거의 비슷했으나 올해는 현대가 기아보다 다소 뒤처지는 모습이다. 현대차는 ▲1~5년 13건(2019년 대비 -4건) ▲6~10년 33건(-9건) ▲11년 이상 60건(-28건)으로 개선됐으며, 기아는 각각 10건(-7건), 28건(-14건), 64건(-23건)으로 더 크게 개선되면서 11년차 이상을 제외하고는 현대차를 앞섰다 **[표]**.

르노삼성과 한국지엠은 국산차 중 부식 측면에서 여전히 강점을 보이고 있다. 르노삼성은 특히 11년 이상 차령에서는 37건으로 국산 브랜드 전체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였다. 다만 1~5년, 6~10년에서는 올해 한국지엠에 역전을 허용했다.

쌍용은 1~5년, 6~10년에서는 현대 기아를 다소 앞섰으나 11년 이상에서 83건으로 국산 모든 브랜드 중 가장 취약했다.

국산차에서 부식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부위는 배기통(머플러)으로 전체 사용기간 평균 5.3건에 달했다. 도어(문짝)도 4.5건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뒷바퀴 펜더와 하체 프레임(각각 3.2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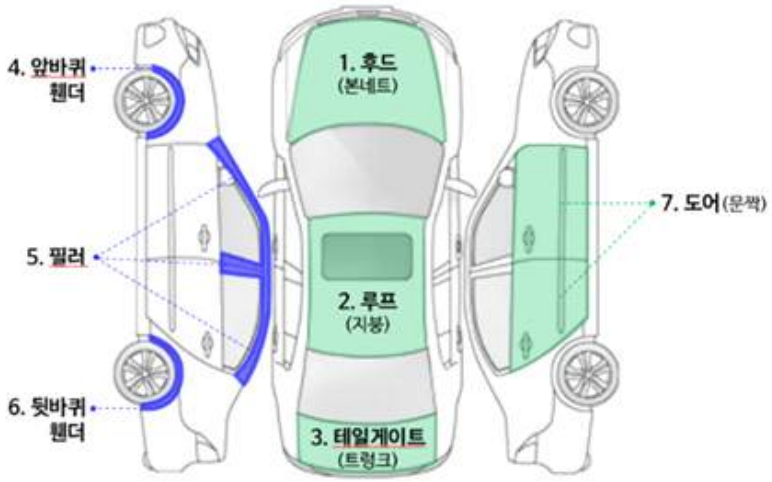
국산차는 올해 초기 품질에서 수입차 평균을 처음 추월하는 등 크게 개선되고 있지만 내구 품질에서는 아직도 많이 뒤졌다(참고. 2021년 자동차 기획조사 보도자료 ②). 내구 품질 중에서도 부식 문제는 국산차의 고질적 약점으로, 오랫동안 소비자의 주요 불만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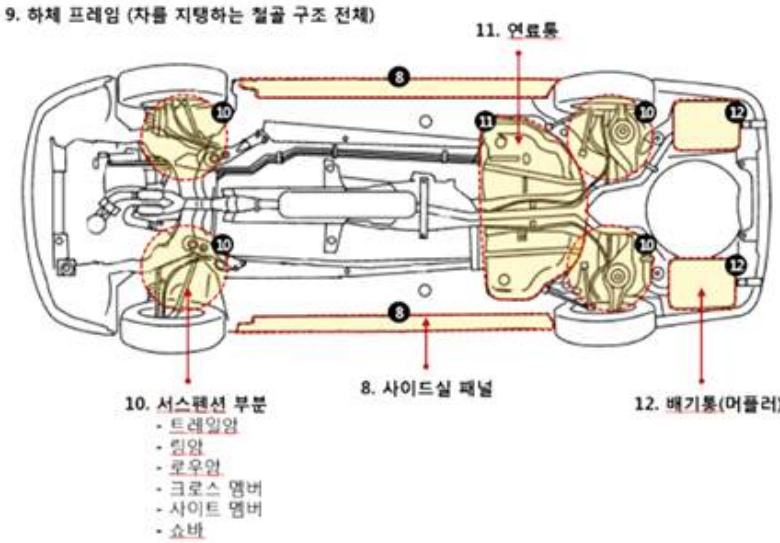
최근 수입차와의 발생 건수 차이가 줄어들고 사용 기간이 오래된 차일수록 개선효과가 크다는 점은 국산차 제조사의 장기간에 걸친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수입과의 차이는 최대 4배 이상이어서 수입차를 따라잡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해 보인다. 부식에 관한 소비자의 오래된 불신을 바로잡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붙임 그림 1] 녹/ 부식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된 이미지

[녹]	[부식]
금속 표면에 산화가 일어나 붉은색으로 변한 것	산화가 많이 진행되어, 금속이 부스러지며 파이거나 구멍이 난 상태

[붙임 그림 2] 부식 부위 표시를 위해 제공된 보기





컨슈머인사이트는 **비대면조사**에 **효율적**인 대규모 온라인패널을 통해 자동차, 이동통신, 쇼핑/유통, 관광/여행,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패널 리서치 데이터**와 **융복합 연계**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는 자동차전문 리서치회사 컨슈머인사이트가 2001년 시작한 표본규모 10만의 초대형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의 제21차 조사(2021년 7월 실시)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

◈ 참고 :「컨슈머인사이트」'연례 자동차 기획조사' 개요

「컨슈머인사이트」는 2001년부터 매년 7월 10만명의 자동차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연례기획조사(Annual Automobile Syndicated Study)를 아래와 같은 설계로 수행해 오고 있음.

모집단*	운전 면허 소지자 중 자동차 보유자/2년 이내 구입계획자
표본 추출의 틀	Consumer Insight, Invight Panel& 주요 포털 사이트 회원
표본 추출 방법	성별/연령별할당 표집
조사 방법	E-mail survey
분석 샘플 규모	95,382명
조사 내용*	Usage & Attitude & CEQ (Consumer Experienced Quality)
조사 기간	2021년 7월

→ 조사대상자의 성격에 따라 측정/분석 내용이 다름

2021년	**95,382명**
2020년	104,208명
2019년	101,145명
2018년	93,230명
2017년	96,213명
2016년	100,788명
2015년	105,672명
2014년	101,821명
2013년	101,701명
2012년	95,012명
2011년	97,356명
2010년	106,291명
2009년	91,129명
2008년	95,472명
2007년	105,149명
2006년	106,088명
2005년	139,825명
2004년	171,499명
2003년	118,195명
2002년	129,277명

Copyright ⓒ Consumer Insight. All rights reserved. 이 자료의 저작권은 컨슈머인사이트에 귀속되며 보도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For-more-Information

박승표 컨슈머인사이트 이사 sammy.park@consumerinsight.kr 02)6004-7661